

한국콜마, 나노복합캡슐 기술 세계최초 개발

한국콜마(대표 윤동한)는 미백, 노화방지 등 약물이나 화장품 등에서 사용되는 기능성 성분을 한꺼번에 나노미터 크기(10억분의 1m)의 캡슐로 만드는 나노복합캡슐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5월10일 발표했다.

나노복합캡슐 기술은 약물을 나노 크기로 줄이는 2세대 약물전달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유화 성분과 리포솜 성분을 한꺼번에 나노 크기로 캡슐화해 2가지의 복합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3세대 약물전달 기술이다.

따라서 나노복합캡슐 기술을 이용하면 기능성 성분의 안정성, 피부흡수율, 보습력 등에서 탁월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실제 한국콜마가 피부전달 효과측정 실험을 한 결과, 주름개선 약물전달 효과가 60% 이상 높아졌고, 미백 약물전달 효과는 200% 이상 경피흡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캡슐은 피부구조와 흡사한 다중막,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인지질 등으로 구성돼 보습 지속력이 좋고 경피수분 증발량을 줄임으로써 피부장벽 기능을 복원하는 데도 효과가 뛰어나다.

한국콜마는 나노복합캡슐 기술을 특허출원했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11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국제화장품과 학자회의(IFSCC)에서 관련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5/05/11>